

##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기



이향귀

(성가병원 감독간호사)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2주간의 일본 연수를 떠나던 날,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였을까. 일본어가 미숙한 자신감 부족이어서였을까. 웬지 무겁기만 하던 나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출발하던 나에게 남편도 못내 걱정이 되었던지 혼자서는 쇼핑을 나가지도 말고 꼭 단체행동을 하라는 사랑의(?) 훈시를 잊지 않았다. 서로의 전화 목소리만 들었던 연수팀원들은 김포공항에서 처음 만난 얼굴들이었지만 같은 CMC 라는 울타리 속의 가족들이어서인지 웬지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편안한 얼굴들이었다.

1시간 여남짓의 뜬 구름 속의 망상을 하던 차 드디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였다. 마중 나온 연수부 쯔다씨의 안내로 후쿠오카 공항에서 다시 1시간정도 버스로 달려 마리아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차창 밖을 응시하는 동안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을 느끼지 못한 것은 거리의 건물이나 대형 간판들, 피부색 및 얼굴 생김새까지도.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대전쯤 온 것 같은 웬지 낯설지 않은 환경은 친근감에 자신감까지

불러 일으켜 주었다. 우리가 연수한 마리아병원은 가톨릭 병원으로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활동을 시작한 병원으로 1953년 개원하여 1300여 병상의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었다. 그리고 신생아실 및 인공신장실, 가정간호사업



▲ 1차연수자 8명과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교육 담당자분들

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연수 첫날, 구급센터에서의 일이었다. 환자가 방문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담당의사가 미리 내려와서 준비하고 대기하는 모습, 환자를

모시고 온 119구조원이나 보호자, 의사, 간호사 모두는 서로에게 정중하였고 환자의 정보를 듣기 위해 경청하는 의료팀의 자세, 보호자도 자기환자만 중요하다고 서둘러 달라는 우리의 의식과는 달리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대기실로 나가서 기다리는 모습에 혹시나 보호자가 궁금해서 문틈을 통해 들어오거나 보지않을까 하는 우리네 정서가 발동하여 문을 향해 쳐다보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보호자들의 이런 모습에서 ‘어쩌면 저렇게 초연할까’ 하는 생각마저 갖을 정도로 의아했다. 그러나, 의사가 설명을 위해 부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료팀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보호자나 환자, 의사 간호사는 멋있는 한팀이 되어 치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급센터에서 체류되는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았던 것이다. 다



▲ 2차임상병리사 연수생들과 일본 성마리아병원 병리과기사장님

음날, 황급히 구급차에 응급 Kit를 갖고 오르는 간호사를 따라 가겠다고 지원했다. 구급차에는 응급구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산소, D.C, EKG, 전화 등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놀란 것은 이러한 최신 장비가 아닌 구급차 안

에서 본 일본의 운전자들의 자세이다. 달리는 구급차는 1차선 도로였다. 대형차든 소형차든 모두 깜박 신호를 보내면서 비켜주는 모습, 특히 대형차는 마치 옆으로 비켜서서 길 옆으로 떨어질 듯 비켜주는 운전자들, 구급차안에서 내려다 본 모습은 나랏님 행차시 주위에서 물결치듯 물러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잠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이들의 국민성을 다시 한번 자기보다는 남을 더 급한 사람을 생각하는 데에 감탄하였다. 이렇게 하여 환자를 모시고 왔는데 응급구조센타를 통해서 입원하는 System이 아니고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가정간호사를 통해 주치의와 사전 연결되어 입원병실로 직접 입원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실정이었다

연수 둘째주는 가정간호사업을 보기 위해 직접 가정방문에 나섰다. 선진국이 그렇듯이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가정에서 끌어안기보다는 병원이나 기관에 위탁하는 장기 노인환자의 증가는 결국 재일일수 증가로 병상회전률이 저조되는 문제가 있다. 비단, 마리아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가정간호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가정방문한 대상자는 하반신이 마비된 72세 할머니인데 욕

창이 제법 넓은 부위였으나 치유된 상처는 흔적만 남은 것으로 보아 가정간호사의 그간의 열정과 간호정신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2주간의 연수를 마치면서 나 자신은 일본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연

수 시작 전까지만 해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얻은 세뇌 교육이 되었던 탓이었을까? 일본이라면 무조건적 배타적이고 꼭 이겨야만 한다는 감정이 잔재했던 터라 팀장이나는 팀원들에게 '우리가 일어를 다소 못해도 미안할 필요없다 못하면 영어라도 해라' 우리 각자 한명 한명은 한국병원을 대표로 온 외교사절단이라 생각하고 연수시간에 힘들더라도 참고 최선을 다하자'라며 뭉치면 산다는 구호아래 당부한 점도 아마 나의 뇌리 속에 그러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어서였지 않았나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 배타정신이 얼마나 좁은 소견이었던지, 몇몇 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과 연계해서 만난 일본인들은 너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할 줄 알았다. 또한 연수를 하면서 병원 시설의 부러움보다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태도-주어진 근무시간에는 절대로 개인 일을 하지 않으며 사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

고 직원들이 환자에게 대하는 태도나 언어야말로 그들의 직업정신은 진정으로 환자를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과 프로정신을 갖고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시설 및 System으로 바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주체와 객체가 누구인지 구분짓기 힘들 때가 많다.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심에서 우리나라오는 사랑과 프로정신으로 환자를 대해야 할 것이다. 2주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은 이에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가톨릭 병원협회에 관계된 모든 분들과 건강하게 연수를 마치게 도와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